



15일 오후 광주시청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감염속도가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이 덮친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스텔스 오미크론’ 덮친 광주·전남 코로나 확진 이틀 연속 2만명 돌파

감염 빨라 검출률 절반 육박
전국에서 첫 우세종화
사망자 급증 화장로 가동 늘려
장례시설 부족 5·6일장 일상화

어 ‘6일장’으로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만1173명, 전남 1만1454명 등 2만2627명이 확진됐다.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전남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통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광주시 단독으로는 이날 첫 1만 명대를 기록했다. 또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 1만914명, 전남 1만1568명 등 2만 2482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이틀 연속 2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광주에선 감염 전파속도가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BA.2)’ 검출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광주의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2월 1주차 0.9%에서 3주차 13.3%, 3월 1주차 34.4% 3월 2주차 45.6% 등을 기록했다. 3월 2주차 기준 전국 평균은 26.3%다. 일반적으로 검출률이 50%를 넘기면 우세종, 90% 이상이면 지배종으로 불리는 데, 광주는 3월 3주차에 접어들면서 검출률 50%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오미크론 변이는 BA.1, BA.1.1, BA.2, BA.3 등 크게 4개의 세부 계통으로 분류되며, 이 중 BA.2는 변이 종류가 잘 구분되지 않아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다. 현재 지배종인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1.5~2배 정도 전파속도가 빠르고, 중증도 등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에선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늘어나는 등

안 신규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도 급증했다. 광주시 월별 코로나19 확진자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804명, 지난 1월 7390명에 이어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2월 6만7532명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스텔스 오미크론이 덮친 이달에는 14일까지 10만 4265명이나 신규 감염됐다. 광주지역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수도 이달 들어서만 전체 누적 203명의 36%인 73명을 기록했다. 특히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시설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광주도시공사는 16일부터 일 평균 영락공원 화장로 가동횟수를 기존 40건에서 50건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광주시도 이날 긴급 코로나19 대응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3대 분야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확진자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시민 협조 없이 방역 당국과의 료진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가정에서는 동거인 확진 시 공간 분리, 마스크 착용 실천, 증상 발현 시 즉각 격리와 가족의 신속항원 검사, 직장에서는 가급적 영상·전화 회의를 하고 부득이한 대면 회의·보고에는 반드시 거리 두기를, 모임과 행사 등에서 마스크 대신 눈인사, 식사 중 개인 접시 활용 등을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알립니다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SINCE 1952 제70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장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접수	3월 14(월)~28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3월 31일(목)	개별통보
심층면접	4월 4일(월)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4월 6일(수)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양식 광주일보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문 대통령·윤 당선인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

MB 특별사면 건의 수용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특히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윤 당선자의 건의를 결국 수용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 박정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오찬 회동 일정을 소개하며 “이날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두 분이 독대하고, 배석자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이고 대선이 치러진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날 회동에서 논의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